



감사의 씨를 심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콩 심은 데서 콩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감사를 품고 감사를 실천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마음속에 불만족에서 나온 불평을 품고 산다면 결과는 절망과 실패로 끝이 난다. 미국의 감부인 헨리 포드와 시골 여선생의 감사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한다.

미국 조지아주에 '마르다 벨'이라는 여 선생님이 있었다.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너무 가난한 시골 학교라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다. 그래서 선생님은 당시에 미국 최고의 부자였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에게 1,000불만 보내달라고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헨리 포드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상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헨리 포드에게 돈을 요구해서 받아 갈 때는 사정해서 받아 가지만, 대부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일거로 생각하곤는 그냥 거절할 수가 없었기 10센트를 보내주었다. 1,000불을 달라고 했는데 1달러도 아닌 10센트를 보냈으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돈을 감사히 받아서 10센트만큼의 땅콩을 사서 운동장 한구석에다 심었다. 얼마 후에 땅콩을 수확해서 얼마 정도의 이익금을 냈다.

그는 그 돈에서 얼마를 떼어서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담아서 보내 주었다. 또 다음 해에도 더 많은 씨를 뿌리고 수확하였다

그 결과 5년 만에 피아노를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헨리 포드는 여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이 요구한 천 불의 10배나 되는 만 불을 보내면서 거기에 "당신이야말로

로 내가 미국에서 만난 유일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내요. 나는 당신을 만남으로 감동하였소."라는 편지를 동봉해왔다.

그 선생은 10센트를 받고 불평과 불만을 심은 것이 아니라, 적게 주었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를 심어서 엄청난 하늘의 수확을 하였다. 땅콩의 수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양이 양을 낳고 소가 소를 낳듯이 불평은 불평을 낳고 원망은 원망을 낳지만,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불평은 불행의 시작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긴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일이 잘 안되고 꼬이십니까? 이때가 바로 감사할 때이며, 기뻐할 때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길은 감사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감사하며 웃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축복의 길이 열린다.

참한 사람은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병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려 하는 사람들이다. 장사가 잘되고 수입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중에도, 역경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분이다.

독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 '감사의 씨'를 마음속에 심어서 엄청난 하늘의 수확을 하여 복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제9대 광산구의회 구성을 위한 제언:

기고

민주주의는 '뽑기'가 아니라 '협치'와 '타협'이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



민주당의 유례없는 내로남불의 공천논란 속에서 6.1지방선거가 끝나고 광산구의원 18명이 확정되어 7월 5일에 의장, 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9대 광산구의회 원구성을 하게 됩니다. 제8대에서는 의원 수가 17명이었는데 선거구조정을 통해서 광산구는 1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중에 14석은 민주당, 3석은 진보당, 1석은 정의당 소속 의원이 당선되었습니다. 제8대에 비해 소수당 의석이 4석으로 늘어난 것은 민주당 소속의 광산구청장을 견제 및 감시해나가는 데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제9대 광산구의회에서 기대해볼 만한 점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8대에서는 초선 의원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제9대에서는 4선 1명, 3선 1명, 재선 6명, 초선 10명 등 선수가 고르게 분포된 것도 능숙한 의회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30대 남성 등 20~30대 청년의원이 탄생한 것도 주목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에서 최근 광산구의회 의장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은 과연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세가 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7월 5일에 광산구의회에서 선출되는 의장 선거 등록을 위해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데 3일동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습니까. 공교롭게도 광산갑과 광산을 소속의 구의원이 각 7명씩 반반으로 당선되어 투표율 해도 동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거구 조정을 통해 비례대표 2명, 광산 갑 지역은 7명, 을 지역은 9명으로 되어 있어서 광산 갑과 을로 대결을 한다면 을 지역이 유리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방선거에서 을 지역에 소수당 소속 의원이 3명이나 당선됨으로써 을 소속의 민주당 의원이 줄어들어 동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장후보로 갑에서 2명, 을에서 1명이 거론되었지만, 갑에서 1명으로 정리를 해서 갑과 을에서 1명씩 의장후보로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은 송갑석 시장위원장의 제안으로 '뽑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상황을 보면서 2년 전 '말이 많았던' 제8대 광산구의회 민주당 의장후보 선출과정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갑을이 아니라 같은 해 몇 달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모 국회의원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는 기준으로 전선이 형성되었으며, 모 의원이 지지한 후보와 상대후보가 동수를 얻어서 연장선 선출에 따라 모 의원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받아드리지 못하고, 특정후보 지지를 위해 단합을 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다시 투표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으면 누가 되든 받아드려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과 기자회견으로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 대표는 소속정당인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물론 상대후보를 찍은 구의원들 7명 모두는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 다. 그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한명도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불상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 당내 갑과 을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 시장위원장의 '솔로문의 지혜'로 '뽑기'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리스 민주정에서는 공직자를 '제비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으며, 미국식 민주주의는 로마의 공화정에서 '선거'로 호민관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민주주의 방식의 기초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광산구 갑과 을의 소속 구의원과 국회의원들이 '협치'와 '타협' 또는 '선거'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뽑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민주주의 방식'이 참으로 우려가 됩니다. 향후 4년간 광산구 주민을 위해서 같은 당의 구청장이 있는 광산구청을 견제하고 감사하며, 조례를 발의하고 구정질의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지역의 수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의원간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해가는 데 있어서 '뽑기'가 아닌 '협치'와 '타협'으로 만들어감으로써, 제9대 광산구의회 의원들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자세를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보행자가 안전한 길'

기고

문소희 보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누구나 한번쯤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나 보도가 없는 도로를 지나다닐 때, 차에 치일 뻔한 아찔한 경험을 겪은 적이 있을 것이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 발생하는 것이 교통사고이며 언제 어디서든 항상 조심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는 2900명, 이 중 보행자 사망자는 1009명으로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의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보행자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보행자 보호 기준을 확대한 "보행자 우선도로"가 시행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이 바뀌어 복잡하고 어렵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딱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먼저, 횡단보도가 있을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면 일시정지를 하는 것, 두 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범칙금 6만 원(보호구역 12만원)과 벌점 10점(보호구역 20점)이 부여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 있지만,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빠르게 가는 것보다 보행자의 안전이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운전하는 순간마다 기억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 운전 문화를 확산하여 교통사고 없는 교통안전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

고령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되어야

기고

김창희 곡성경찰서 경무계장

지난해 우리나라 보행사상자의 59%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나타났다. OECD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 통계에서도 압도적 1위로 전체 회원국 평균 2.5명보다 4배에 가까운 9.7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2000년에는 7%를 넘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 고령자 교통사고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 보행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위험 상황에 대한 반사보행 속도가 느려 보행 시 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여름철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횡단보도 대기 중 더위를 막아주는 스마트 그늘막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무단 횡단 금지 ▲보도블록 이용 ▲횡단보도 이용 ▲보행 신호 준수 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법 4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서 도로를 횡단한다면 더 이상의 고령 보행자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교통시설물 보강 등도 중요하지만 고령 보행자의 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안전하게 도로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small>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small>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